

‘대어’ 박정아 품은 시페퍼스...공격 활력 속 수비 보강 과제



박정아가 지난 6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도드람 2022~2023 V리그 어드 자부 챔피언결정전 5차전에서 리시브하고 있다. (KOVO제공)

리그 526 득점·공격 성공률 36% 승부의 흐름 바꾸는 ‘클러치 박’ 전력 크게 끌어올리고 팀에 활기 강한 공격 비해 약한 수비 고민 ‘2인 리시브’ 도입 등 활용전략 주목

광주 시페퍼스 배구단이 ‘대어’ 박정아(30)를 영입해 주목받고 있다.

페퍼스가 FA(자유계약) 시장에서 영입한 아웃사이드 히터 박정아는 리그 최고 공격수 가운데 한 명이다. 2022~2023시즌 한국도로공사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끈 박정아는 정규리그 32경기에서 526득점, 공격 성공률 35.59%를 기록했다. 리그 최고 득점력은 물론 승부흐름을 바꾸는 큰 공격에도 강해 ‘클러치 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2년 연속 리그 꼴찌였던 페퍼스가 박정아를 영입함으로써 단숨에 다크호스로 분류될 정도다.

박정아는 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선수로 꼽힌다. IBK기업은행에서 세 차례 챔피언결정전 트로피를 들어올린 박정아는 2016~2017시즌이 끝난 뒤

FA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 이적했고, 2017~2018시즌과 2022~2023시즌 두 차례 우승을 견인했다.

김형실 페퍼스 전 감독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구를 시작한 박정아는 실력은 물론이고 우승복이 많은 선수”라며 “페퍼스에서 제 실력을 발휘한다면 팀 전력을 크게 끌어올리고 팀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탑 클래스 공격수지만 박정아는 퍼펙트한 선수는 아니다. 공격력에 비해 리시브 능력이 처지는 게 약점이다. 수비부담 때문에 공격 부침이 심하다. 연간 총보수 7억7500만원(연봉 4억7500만원, 옵션 3억원)에 3년 계약을 맺어 김연경(흥국생명)과 어깨를 나란히했지만, 수비력에서는 한참 뒤쳐진다. 김연경의 리시브 능력은 전문 수비수인 리베로를 능가한다. 김연경을 월드 클래스로 꼽는 이유다.

박정아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극단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여자배구 8강전에서 네덜란드에 세트 스코어 1-3으로 패했다. 네덜란드의 서브는 리시브가 가장 취약한 박정아에게 집중됐다. 리베로 김해란이 수비 커버에 나섰다. 역부족이었다.

전 소속팀 한국도로공사는 수비에 약한 박정아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인 리시브’ 체제를 도입했다. 박정아의 리시브를 면제해주고 수비 전담 요원을 후위에 별도로 배치한다. 기존 리베로에 수비전담을 붙여 ‘2인 리시브’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리베로 임명욱과 원스파이커 문정원이 맡았다. 일반적으로 아포짓 스파이커인 외국인 선수의 수비를 면제하고 리베로가 커버하는 1인 체제와 다른 점이다.

결국, 페퍼스는 박정아를 영입함으로써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된 셈이다.

도로공사에서 처럼 수비를 면제해주고 공격력을 극대화할 것인지, 공수를 모두 맡길 것인지. 페퍼스에서 2인 리시브 체제를 유지하면 결국 공격력은 약화하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리베로 오지영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의 기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2인 리시브 체제를 운영할 수 있느냐다. 도로공사에서는 수비달인 문명욱과 문정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아헨 김(Ahen Kim·37) 감독의 전략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정철 SBS스포츠 해설위원 “FA 시장에서 주목받는 박정아를 페퍼스가 영입했지만 어떻게 장점을 살릴 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피겨 단체전, 2026 올림픽 도전 희망 봤다

팀 트로피 준우승으로 경쟁력 확인 페어·아이스댄스 선수 발굴 과제 유망주, 국제대회 출전 기회 줘야

한국 피겨 대표팀이 국가대표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월드컵 팀 트로피 대회에 출전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팀 트로피는 2009년 시작했지만, 한국 대표팀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초청받지 못했다.

페어, 아이스댄스 등 단체전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귀화 선수의 힘을 빌려 피겨 단체전에 출전하기도 했다.

한국은 아이스댄스 알렉산더 겐민이 법무부의 특별귀화 심사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겨우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평창올림픽은 팀 트로피 대회 전까지 한국 피겨 대표팀이 출전한 유일한 단체전이었던 것이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도 외국 선수들에게 힘을 빌렸다.

페어에선 한국과 캐나다 이중 국적을 가진 페어 조혜진과 영국과 캐나다 이중 국적인 스티븐 애드콕 조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고, 아이스댄스에선 한국-캐나다 이중 국적 선수 임해나와 아이슬란드 태생 중국계 캐나다인인 최안애가 나섰다.

한국은 이들의 합류로 대표팀 구성을 마칠 수 있었고, 은메달 획득의 값진 결과를 끌어냈다.

한국 피겨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올림픽 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엿보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ISU 주관 대회는 두 선수 중 한 선수의 국적에 따라 대표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올림픽은 두 선수 모두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한국이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남북극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에 출전하려면 최안애, 애드콕이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팀을 발굴해야 한다.

일단 최안애는 한국 귀화에 관한 의지가 있다. 최안애는 17일 팀 트로피 대회를 마친 뒤 서울



차준환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올림픽 출전은 큰 꿈”이라며 “귀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외국 선수들의 귀화 여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단체전 유망주 육성성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유망주들이 적극적으로 단체전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피겨 대표팀 주장 차준환은 이날 귀국길에서 이런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단체전 유망주들에게 국제대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스댄스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시니어 데뷔전, 페어 선수들은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렀다”며 “선수들은 국제대회를 많이 뒤흔 경험 이 쌓이고 실력이 는다. 미래를 위해 많은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연합뉴스



18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케냐의 에번스 체벳(왼쪽)과 헬렌 오비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스턴 마라톤, 케냐가 휩쓸었다

체벳·오비리 남녀 동반 우승 세계기록 보유 킵초게 6위

에번스 체벳(35·케냐)이 ‘역대 최고 마라톤녀’ 엘리우드 킵초게(39·케냐)를 밀찌까지 따돌리고 보스턴 마라톤 남자부 2연패에 성공했다.

지난해부터 트랙 장거리와 도로종목인 마라톤을 병행하는 여자부 헬렌 오비리(34·케냐)는 두 번째 마라톤 폴코스 도전에서 짜릿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체벳은 18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끝난 2023 보스턴 마라톤에서 42.195km 폴코스를 2시간05분54초에 완주해 지난해(2시간05분51초)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해 11월 치른 뉴욕 마라톤을 포함하면 3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가브리엘 게이(탄자니아)가 2시간06분04초로 2위, 벤슨 키프루토(케냐)가 2시간06분06초로 3위를 차지했다.

체벳의 2연패 달성만큼이나 주목받은 건, ‘킵초게의 패배’였다.

킵초게는 2시간09분23초로 6위에 그쳤다. 킵초게의 마라톤 폴코스 기록 중 가장 느렸다.

남자 마라톤 세계기록(2시간01분09초)을 보유하고, 이 대회 전까지 17번의 마라톤 폴코스 대회(올림픽 포함)에 출전해 15번 우승한 킵초게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적표였다.

여자부에서는 오비리가 2시간21분38초로, 2시간21분50초에 달린 아마네 베리스(에티오피아)를 제치고 우승했다.

케냐에서 태어났지만, 2008년 이스라엘로 이주해 보모로 일하고 2016년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은 로나 첼타이 살페타는 2시간21분57초로 3위를 차지했다.

오비리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2021년 도쿄 올림픽 여자 5000m에서 연속 은메달을 따고, 2017년 런던과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 5000m에서는 2연패를 달성한 ‘트랙 종목 장거리 강자’다.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처음 마라톤 폴코스에 도전해 2시간25분49초로 6위를 한 오비리는 두 번째 치른 폴코스에서 개인 기록을 4분11초나 단축하며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존 워 4
- 2관 리버우드, 보이지 않아
- 3관 스페이의 문단속, 겨울 속 외딴 성
- 4관 존 워 4
- 5관 스페이의 문단속
- 6관 킬링 로맨스
- 9관 존 워 4, 렌필드
- 7관 씨네마 1000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귀를 기울이면
- 8관 씨네마 1000 렌필드, 라이스보이 슬립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즐거움 문화산책